

부안 남주중 ‘제9회 남주 학술제’ 대성황

‘First Step,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

전북 부안에 소재한 남주중학교(교장 임용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펼치는 ‘제9회 남주 학술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제는 First Step,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술 탐구’, ‘진로 탐색’, ‘참여 체험’ 등 총 3개의 마당으로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초등학생 ‘바이어’들과 함께 호흡한 ‘학술 탐구 마당’... 융합적 지성의 현장

첫 번째 네마인 ‘학술 탐구 마당’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학술제 이틀 차인 7월 15일 수요일 오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남주중을 찾았다. 부안읍 내에 소재한 부안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명과 부안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4명이 지도교사들의 인솔하에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 164명의 초등학생들은 남주중의 대표 프로그램인 ‘배움장터’에 ‘바이어’ 자격으로 참여하여 중학생 선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학술 부스를 열정적으로 탐색했다. 선배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후배 초등학생들이 바이어로서 날카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지면서 학술제의 열기는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기에 북시토론회, 수학올림피아드 영어 말하기 한마당 등 교과 연계 경연을 통해 탐구 능력을 겨루었으며, 한 학기 동안 정성껏 만든 창의적 산출물을 선보인 ‘교육활동 전시회’가 한껏 열려 배움의 깊이를 더했다. 아울러 미국 캐서린 존슨



부안 남주중학교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펼치는 제9회 남주 학술제 를 개최했다.

인근 부안초·부안동초 6학년생들, ‘배움장터’ 바이어로 동참 눈길

학술·진로·체험 3개 마당으로 학생 주도의 역동적 성장 이끌어내

중학교 교사 초청 특강과 기후학교 특강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지구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내 안의 가능성 발견한 ‘진로 탐색 마당’... 미래 이정표 설계

자신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진로 탐색 마당’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계열단색검사를 해석 특강 및 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성향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학원 선배와의 진로 멘토링을 통해 진학의 로드맵을 그려나갔다. 아울러 진행된 ‘청소년 마음 시론 9년, 해태 작가와의 특별한 만남’은 지친 학업 속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몸소 겪으며 배우는 ‘참여 체험 마당’... 지적 경쟁과 주도적 실천의 장

학생들의 역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참여 체험 마당’은 깊이 있는 탐색과 지적 경쟁이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꾸며졌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치열한 개인전을 펼치는 ‘서비어블 학술 퀴즈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XR(확장 현실) 체인 교실과 진로 체험 교실을 통해 첨단 기술과 넓은 직업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환경 보호를 몸소 실천하는 지구를 구하는 비누 바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뜻깊은 실천의 장이 됐다.

임용태 교장은 “이번 학술제는 우리 학생들이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으며 배움의 진정한 주제로 우뚝 서는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움장터에 바이어로 참여해 중학생 형·누나들과 함께 호흡하며 배움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갖춘 미래 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흘간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된 제9회 남주 학술제는 ‘탐구하는 지성’과 ‘실천하는 인성’이 공존하는 배움의 공동체로서 남주중학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지역 초등학교와의 성공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 교육 문화를 지역 역사화에 더욱 넓고 깊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 만든다

전북교육청, 도내 중고교 28곳서 찾아가는 예방교육

11월까지 진행...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우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28개교 127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를 우선 지원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전문 자격과 관련 분야 교육 경험을 갖춘 강사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급별로 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시청각 자료와 사례 분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퀴즈 등 에듀테크 기반의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연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2200회의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약사회와 협력해 100회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해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청조내래 시청각실에서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 를 열었다.

특수학교 전공과·대학 입학 정보 한자리에

전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와 대학 입학

석대학교, 대구대학교가 참여해 대학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전형과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도내의 6개 대학이 참여한 1대1 상담 부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상담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특수학교 전공과와 취업 지원 설명회가 이어졌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직업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자립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날 전공과 운영 사례와 졸업생 취업 사례가 소개됐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연계한 취업 지원제도 안내도 함께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 과정과 입학 절차,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취업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진학 선택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한경국립대학교와 우

완주교육지원청, 여름방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놀봄 창의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교육지원청은 7~8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여름 학교로 찾아가는 놀봄 창의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참여형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배밀리 매직쇼’와 교과서 속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로 구성된다.

‘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함께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을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는 실내악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비발디의 ‘사계’, 모차르트의 하인레 클라리네 나흐트 무지크’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눈높이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완주지역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학교 강당과 시청각실 등에서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전국 최대 규모

IB 수업·평가 연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IB 수업·평가 실천 연수를 운영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주대학교 온누리홀과 진리관에서 총 16시간 과정의 IB 수업·평가 실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IB 운영학교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맞춤형 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인 17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연수에는 도내 IB 운영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19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학교급과 교과 특성을 반영해 △IB 초·중·고 과정 △탐구 기반 교육과정 설계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 △고등학교 핵심과정(COPE) 이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 교원들은 학교급과 교과, 운영 단계에 맞는 수업과 평가 방안을 공유하고 탐구 중심 교수·학습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진은 IB 연구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국내외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IB 프로그램 운영과 수업·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IB 기반 수업·평가 실행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전북형 수업혁신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협오·차별 대응 민주시민 역량 강화... 평화공존 교육

군산교육지원청, 9~11월 160개 학급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평화공존 교육을 운영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공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표현에 평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성료

73개 대학 참여·3000여명 방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최한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박람회에 학생과 학부모 등 3,000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대학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대학별 상담 부스와 입시설명회, 릴레이 진학특강 등으로 구성됐

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군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두 160개 학급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평화공존 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급별 2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차시에서는 혐오 표현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외모와 출신 지역, 장애, 다문화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사례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2차시에는 온라인 혐오 표현을 분석하고 역할극과 혐오와 차별의 대응 너무 만들기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공격적인 대응과 평화적인 대응의 차이를 배우고, 혐오와 차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과 행동 방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실천할 용기 있는 행동’을 고민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학교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오상근 기자

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기간에는 모두 네 차례의 릴레이 진학특강도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비롯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대비, 학생 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준비, 의학 학계열 지원 전략 등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전 정보를 제공했다.

전호성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꿈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더 넓은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